

주님 공현 대축일:

2017년 1월 8일 (가해)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49 호



주일 미사: 오전 9 시 (한국어, 영어), 오전 10 시 30 분(영어), 오후 12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오후 2-6 시), 화.수요일 (오전 9:30 시-오후 8 시). 목 (오후 2-6 시),

금요일(오전 9:30 시-오후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487)	봉헌 (512)	성체 (165)	파견 (101)
---------	------------	------------	------------	------------

2016 년도 구역 및 구역원 명단

1 구역 : 유 마리아(구역장), 이 바실리오, 배 실비아, 배 안젤로, 양 유리안나, 오 베드로, 오 루시아, 유 요한, 손 아놀드, 손 쟈마, 최 요안나, 최 마태오

2 구역: 이 마틸다(구역장), 이 그레이스, 장 글라라, 이 요한, 이 요셉, 이 데레사, 전 제노베파, 김 안드레아, 김 마르타, 데니엘 한, 사비나

3 구역: 김 헬레나(구역장), 박 니콜라스, 박 마가렛, 김 마론, 김 데오도라,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허 루카, 배 시몬, 김 글라라. 이 울리안나.

4 구역: 김 유스티나 (총 구역장), 홍마르코, 홍아네스,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이 글라라,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정 바오로, 정 린다, 김 유수티노, 김희정, 고순영.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8/17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15/17	유 요한	이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22/17	박 니콜라스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29/17	이 마틸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12/25/16 현금 현황 정정 합니다)

주일미사	봉헌금	2차 봉헌	교무금
12/25/16	\$330	0	\$740
1/1/17	\$285	\$92	\$ 300

새 신자 교육 1/8/17 다시 시작함.

그 동안 년말, 년시 와 한국 방문으로, 잠시 쉬웠던, 새 신자 교육을, 1/8/17 일 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장소는 성당에서, 주일 미사후에 할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은 박 니콜라스 형제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1월 1일 New Year's Day - 아침식사

새해를 맞아, 떡국과 음식을 준비해 주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 은총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협 임원회의: 1/15 (일) 오후 7 시

1월 한인공동체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는, 둘째 주일인 1월 15일(주일) 저녁 7 시에 사제관에서 있겠습니다.

성체조배: 1/5/17(목) 오후 6 시 30 분

1월 성체조배는 첫째 목요일인, 1월 5일(목), '저녁 6 시 미사 후에 있었습니다. 여러가정이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2월 2일 오후 6 시 30 분에 있습니다.

고백 성사: 주중, 또는 주일미사 30 분전

고백 성사는 주중이나, 주일미사 30 분전에 있사오니, 양지하시어,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미사 책값 과 세금보고를 위한 현금 영수증

2017 년도 매일미사 책값(\$50/권당) 을 재무부장님에게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보고를 위한 현금 영수증 또한 이 그레이스 자매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삭

참행복

이창용 레오/ 뮤지컬 배우

사람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궁금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도 운동도 잘하지 못했고, 남들에 비해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너 나중에 뭐 될래? 커서 장가는 가겠니?"라며 농담을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하라고 크게 강요하신 적도 없었고, 별다른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만으로도 행복해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 노래하는 것과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해서 그럴 기회가 생기면 마냥 행복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던 연기 전공으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되어 졸업과 동시에 운 좋게 프로 무대에 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공연 연습을 하는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하고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뮤지컬 배우로 프로 무대에 선지 7년이 되던 해에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7년 동안 20여 개의 작품을 연기해 오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잊고 일에만 급급한 생활을 해 왔으니, 슬럼프는 예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적도 많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울함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고, 본당이 아닌 다른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요새 어떤 작품을 하느냐?", "요새 뭐해?"라는 말이 너무 듣기 싫어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슬럼프를 지독하게 겪고 나니, 슬럼프를 어떻게 벗어나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부님과 학사님, 성당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언을 들으며 스스로를 달래던 중,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학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사님은 "너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었어. 너 되게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지금 그걸 잠시 잊고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문제는 아닌지 잘 생각해봐"라는 말을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제 마음이,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제 마음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해던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낸 후 선택하게 된 작품이 바로 7년 전 데뷔 작품이었던 뮤지컬 '알타보이즈'였습니다.

성당 복사 친구들이 전 세계 각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내용의 공연이었습니다. 학사님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서인지, 첫 데뷔 무대를 준비하던 가장 행복했던 7년 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많이 힘들었던 기억조차 행복한 고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오늘도 다짐합니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서울주보에서>

<성경속 동식물>

이방인에 비유된 개

성경은 개의 무절제한 욕심을 빔대 '게걸스러운 개들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른다'(이사 56,11)면서 이스라엘에 부패한 지도자들을 꾸짖는 데 사용했다. 그리고, 불결이나 멸시, 하찮음, 사탄, 위선, 이방인, 거짓교사, 구원받지 못한 이의 비유로 사용됐다. 그렇지만 개는 충직하고 의리가 있는 동물로서 이중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글 성경속 동식물/ 카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발행>